

전국학생신앙운동

기도운동

7月

2020

SFC 기도제목

● SFC를 위한 기도제목

-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 세계교회 건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개혁신앙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적 변혁을 위한 노력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 7월의 기도제목

- 코로나-19 상황에도 SFC와 교회가 양육과 훈련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하도록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 총회지도위원 및 노회지도위원장 연석회의가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7/6-7)
- 2학기 사역의 준비(신입생모집, 전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주소서

> 서울남부·서부지부

- 간사공동체와 지도력 : 함께 사역하는 간사공동체(이현준, 민영운, 조유진, 강예림, 김혜리)가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나라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부책임간사가 부족해 두 지부를 묶어 놓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부책임간사가 세워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필요한 여러 필요들도 적절하게 잘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 교회연합사역 : 지난 수년간 교회연합사역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노회와 서울서부노회의 필요들을 잘 살펴, 적절한 교회연합사역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헤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 학원연합사역 :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학원모임이 그 소명과 생명력을 잘 이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직 개척하지 못한 대학이 너무나 많은데, 함께 하나님나라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운동원들과 간사들이 더 이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 서울중부지부

- 간사공동체와 지도력: 함께 사역하는 간사공동체(박현혁, 오승훈, 류선영)가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나라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강사무엘간사의 사임 이후 지부책임간사가 공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좋은 지부책임간사가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 교회연합사역과 학원연합사역에 대한 기도제목은 서울남부·서부지부 기도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부탁드립니다.

> 서울권역 공통기도제목

- 서울권역 전체에서 현재 8명의 간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울권역이 담당한 교회연합사역과 학원연합사역을 생각할 때, 최소 12명 이상의 간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두고 인사와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길 소망합니다.
- 같은 서울에 위치한 본부 및 훈련원과 잘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나라 운동과 개혁교회 건설을 이루어갈 수 있길 기도해주시요.

해외지부 S지부

- 이곳은 바이러스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물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시, 체온 체크 후 QR코드로 신상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바이러스 트라우마로 많은 사람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긴 격리생활에 익숙해져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저소득층의 가정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의 바람이 지난 후 눈앞에 경제불황의 큰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 사업은 대부분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지만 모든 내용이 모니터링 되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리더들을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정회사들의 온라인 모임도 시행착오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모임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도하는 한국 유학생반 학생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음학기 혹은 1년 뒤로 유학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격리 후 91일 만에 외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도시 내에 거주하는 990만명 모두 핵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회도 검사를 받았고 안전하다는 통보들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도움과 그동안 함께 기대(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 급변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 리더들이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 바이러스와 사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